

# 무안전통시장 특화상품 '황토실빵' 판매 호응

### 무안갯벌낙지축제서 전통시장 홍보·특화 먹거리 판매

### 양파·농게·고구마 모양에 농특산물 이용해 만든 빵

무안군은 지난 10월 27~28일 무안갯벌낙지축제에서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전통시장 특화 먹거리를 판매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상인회와 첫걸음시장 육성사업단이 무안전통시장에서만 살 수 있는 특화먹거리 '황토실빵'을 관광객들에게 미리 선보여 고객의 반응과 앞으로 개선할 점 등을 현장에서 소통하며 상품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했다.

황토실빵은 양파, 농게, 고구마 모양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빵으로

양파빵은 양파를 반죽한 재료에 야채소를, 농게빵은 국산 팔소를, 고구마빵은 고구마 앙금을 채워 넣어 판매했다.

특히 이 중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고구마 빵이었고, 양파빵은 양파냄새의 조절을 요청하는 등 고객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준비한 재료가 조기에 소진되어 시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김산 무안군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하나인 황토실빵이 무안을 대표하는 간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과 시장상인회  
는 오는 11월 17~19일 YD페스티벌에서도 황토실빵 시식 및 판매 부스를 운영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 함평군, 남종우 농가에서 양파 기계 정식 시연회 개최

함평군은 "지난 10월 30일 손불면 남종우 농가(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 포장에서 양파 기계화 정식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는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 조용빈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양파 기계 정식 과정을 시연했다.

이날 군은 2023년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으로 보급된 양파 승용정식기를 시연하였으며 시연 결과 결구율이 3% 이내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올렸다.

남종우 회장은 "양파 농사 시 가장 어려운 점이 일손 구하기였으나 이번 기계 정식을 통해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 농촌은 고령화, 인건비, 자재값 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며 "이번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양파 기계화 면적을 220ha로 확대해 나가는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목포시, 힙플레이스 2회차 공연 해관무도회 '모던파티'

목포시가 오는 4일 오후 6시부터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큰창고에서 해관 무도회 '모던파티'행사를 개최한다. 1897 해관 무도회 '모던파티'는 시가 진행되는 2023 힙플레이스 투어 프로그램의 2회차 공연이다.

해관 무도회 '모던파티'는 목포의 가수 '이난영'을 동기로 한 재즈 공연과 결합해 현대무용, 발레 공연이 펼쳐지고, 한국의 케니지로 불리는 색소폰 연주자 고민석 씨를 초청해 짙어지는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2회차 공연에서는 재즈와 더불어 간단한 식음(와인 등)이 마련된다.

또한, 특색있는 공연 프로그램 외에도 '레드' 제품을 착용하거나 문화재 야행 인증도장 찍기(스탬프컬렉션)를 완료하면 소품 세트를 제공하는 등의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힙플레이스(hip+place) 투어 상품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개성 있는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이라는 공간에서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면서 "문화재 야행, 전국장애인체전으로 목포에 방문한 관광객들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2023 힙플레이스 투어 프로그램은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을 활용한 행사이다. 1회차 행사에는 가수 변진섭과 느끼는 가을 음악회를 주제로 통기타 및 클래식 공연 등 7080 세대에게 추억의 장을 마련하고 MZ세대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영암군, 내일 영암읍서 '달빛 수제맥주 페스티벌' 개최

### 오거리 일대에서 다양한 공연과 플리마켓 즐길 수 있어

영암군이 오는 3일 저녁 영암읍 오거리 일대에서 '영암 달빛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9월 열린 '영암 달빛 축제'에 이은 행사로, 당시 주민의견을 수렴해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플리마켓 콘텐츠를 추가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암군의 수제맥주 '늘찬맥'을 선보인다. 이 맥주는 영암군과 주류 제조 전문기업인 '무등산브루어리'가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한 것.

늘찬맥은 영암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 맛과 향이 특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페스티벌에서는 영암의 쌀, 고구마, 멜론으로 만든 3종류의 늘찬맥을 시음할 수 있다.

페스티벌에서 영암군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변검미술사 김영록,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정선호, 트로트 가수 풍금이 출연하고, EDM공연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다양한 공연 사이는 페스티벌 참여자들을 위한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행사다. 영암 수제맥주 늘찬맥과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다양한 공연과 플리마켓을 즐기며 지역 경제와 상가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군, 운영비 지원하는 민간 책방 유치...개소식

드디어 신안에 책방이 생겼다. 10월 31일 압해읍사무소 1층 신안군가족센터 건물에 45평 규모의 도서관 기능을 하는 민간 책방이 문을 열었다.

신안군은 전국에서 서점이 없는 몇 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였으며, 군에서 책방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004 책방 운영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책방 운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1004 책방'은 군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달에 최대 3권까지 빌릴 수 있다. 반납은 읍면사무소 또는 신안군 도서관과 1004 책방 중 어디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책방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일요일과 법정 휴일은 휴무다.

사람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신안군 복지재단을 통해 크레도 오프쇼어(주)에서 신간 도서 2,700여 권, 학지사 외 3개 출판사(미래의 창, 동양북스, 아람북스)에서 7,300여 권, 총 10,000여 권의 새 책을 기증하였다.

신안=이덕주기자

## 영광군, 농식품 활용 밀키트 개발을 위한 교육

###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전문 인력양성

영광군은 지난 10월 4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10회) 예비창업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밀키트 개발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소규모 가공 창업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경쟁력 있는 제품 개

발을 위한 실습교육 등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진으로 농외소득 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스 활용 밀키트의 이해, 소스 제조 실습, 전골류, 찜개류, 볶음류의 밀키트 이해 및 제조실습, 대파활용 볶음류 제품 개발, 상품기획 전략, 식품공전을 통한 원료 안전성 확인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